

개 회 사

맑고 푸르른 기운속에서 수확과 나눔이 풍성한 계절입니다. 이러한 청명함이 가득한 가운데 3대 종교가 공동으로 준비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자비와 나눔”을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반가움과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자비와 나눔”은 그동안 종교계에서 진행해온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발전을 위한 종교계의 비전을 제시하는 소중한 인연이라 할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종교는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는 본연의 정진을 넘어, 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자비와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여느 종교와 마찬가지로 불교 역시 자본과 이윤을 우선하는 풍조로 인해, 허물어져가는 인성과 행복한 삶, 그리고 공동체정신을 회복하여 더불어 사는 삶을 일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실천하고자 교단 내 사회적 기업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활동과 불교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생태계 조성, 그리고 창업지원과 판로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오기도 했습니다.

종교계가 앞장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일은 시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겨집니다. 또한, 잠재되어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발굴하여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 상승과 다양화를 통해 경제의 활성화와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에 기여하는 것은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향기로운 실천이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종교인 불교·기독교·가톨릭 교단과 정·관계 기관, 그리고 민간단체와 사회적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 경제적 부의 편중과 사회의 양극화가 주는 폐해를 극복하고 인간의 존엄과 공공의 사회적 가치 복원을 위해 한결같은 실천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최근 국회에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노력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정, 관계 및 사회적 기업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항상 지혜롭고 너그러운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시는 종교 지도자님께 고마운 마음을 드리며, 오늘의 인연이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선명한 전환점이 되고, 현대인의 삶과 우리 사회를 환하게 비춰주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0년(2016)년 10월 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